

프랑스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공유문화 적재어 연구 -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 중심으로*

김 은 정
(서울대학교 강사)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언어적·문화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유문화 적재어(mots à Charge Culturelle Partagée)를 수단으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특별히 목표어 사회 구성원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밝혀주는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일상에서의 사용 빈도에 의거하여 목록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의 연구 범위를 1.동물, 2.음식, 3.신체 부위로 한정하고, B수준의 관용표현 구성 단어 가운데 판단을 드러내는 단어가 이 세 가지 범위에 부합하는 경우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일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선별하기 위해 프랑스 현지 원어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제어 : 의사소통 능력, 공유문화 적재어,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 어휘문화, 공유문화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18S1A5B5A07074147).

1. 머리말

사회언어학자 Hymes를 위시한 Canale et Swain, Moirand, Boyer 등의 여러 외국어 교육학자들이 이미 오래전 역설한 바 있듯이, 의사소통 능력 (compétence communicative)은 언어와 문화, 이 두 가지 능력이 조화롭게 발휘될 때 발달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언어와 문화는 매우 불균형하게 다루어지거나 이 가운데 한 가지 측면만이 교육 혹은 연구 대상이 되곤 하였으며,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배양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이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미미하였다.¹⁾

이에 본 연구는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언어 및 문화 능력을 함께 함양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단으로서 언어적·문화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유문화 적재어(mots à Charge Culturelle Partagée, 이하 mots à C.C.P.)를 제안한다. 그리고 이 가운데 특별히 목표어 사회 구성원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밝혀주는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²⁾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목록화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역사나 관습 등의 토대 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스며있는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는 외국인 학습자가 특히 파악하기 어려운 어휘 부류이기 때문이고, 둘째, 모르는 단어에 대한 정보를 얻을

1) 김은정(2018:132-133)은 ‘대학 교양 프랑스어 교육 현황 고찰’이라는 제목의 연구에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확인된 ‘과거’ 여러 문제점을 심각성 정도에 따라 순위화하고, 그 문제들의 개선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거’ 제기된 문제 가운데 ‘언어와 문화의 상호 연계 교육 부족’ 문제가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가장 큰 심각성을 나타냈으며,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문조사 결과 프랑스 문화가 10~20%, 프랑스어가 80~90%의 비율로 매우 불균형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비록 ‘대학 교양 프랑스어 교육’ 현황에 기초하여 도출된 것이지만 다음의 두 가지 이유, 곧 첫째, 본 설문조사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관련 정보의 신뢰도가 높다는 점과, 둘째, 교양 프랑스어 교육이 프랑스어 교육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2)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는 공유문화 적재어(mots à C.C.P.)의 핵심을 이루는 C.C.P.가 판단의 소산(produit de jugements, Galisson, 1991)인 경우를 의미한다.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 개념은 III-1절 참조.

수 있는 어학 사전이 외국어 학습에 매우 유용하듯이, 외국인 학습자가 습득하기 어려운 목표어 사회 구성원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밝혀주는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정리한 이 같은 목록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은 자명하며, 셋째, 교육적으로 유용한 어휘 목록을 구성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객관적 기준이 빈도수³⁾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용 빈도가 높은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선별해 목록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고,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⁴⁾

따라서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공유문화 적재어’와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의 연구 범위를 1.동물, 2.음식, 3.신체 부위로 한정된 후, B수준의 관용표현 구성 단어 가운데 판단을 드러내는 단어가 이 세 가지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를 조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의 사용 빈도를 확인하기 위해 프랑스 현지 원어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사용 빈도가 높은 순으로 목록화할 것이다.

3) Binon, J et al. “Lexicographie pédagogique et enseignement/apprentissage du vocabulaire en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ou seconde(FLES)”, *Cahiers de lexicologie*, 78, 2001. pp.43-44.

4) 국내에서 Galisson의 어휘문화(본문 II-1절 참조)와 공유문화 적재어 개념을 근간으로 한 선행연구로는 심봉섭(1999)의 ‘어휘를 통한 프랑스 문화 교육’, 김은정(2012, 2013)의 ‘프랑스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 어휘 개념정립과 유형 분석(2012)’과 ‘프랑스어의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문화 어휘 목록 수립 연구(2013)’ 그리고 광노경(2017)의 ‘프랑스어 단어 속에 담긴 문화 연구’가 있다. 이 가운데 심봉섭(1999)은 여러 어휘문화 발현 양상(각주 5번 참조) 가운데 ‘상표 명사’에 초점을 맞추었고, 김은정(2012, 2013)은 어휘문화 발현 양상들에 대해 ‘문화 어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새롭게 정의하고, 다양한 문화 어휘 유형을 정립하는 가운데 공유문화 적재어를 그 하나의 유형으로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광노경(2017)은 단어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며 새롭게 탄생한 문화 현상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문화 현상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어에 집중한 나머지 Galisson이 강조한 ‘일상대화나 글에 사용된 단어들에 함의된 문화’(Galisson, 1995)가 아닌, 일상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단어, 가령 베레, 트리코, 코르사주 등과 같은 단어들에 함의된 문화를 주로 다루었다.

II. 의사소통 능력과 공유문화 적재어

본 절에서는 공유문화 적재어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의사소통 능력과 공유문화 적재어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밝힐 것이다.

1. 공유문화 적재어

공유문화 적재어(mots à C.C.P.)는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을 염두에 두고 언어와 문화를 통합시키고 결속시켜 단어를 통해 문화에 접근하기 위해 탄생한 어휘문화(lexiculture)의 운반수단⁵⁾으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어휘문화 개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휘문화는 « 학습의 목적이 문화 그 자체가 아닌 모든 담화에 사용된 단어 안에서 혹은 단어를 통해 동원되어 구현되는 문화... »⁶⁾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어휘문화는 문화 교육에 목표로 하지 않는 일상대화나 글에 사용된 단어들에 함의된 ‘문화’라고 볼 수 있다. 공유문화 적재어는 바로 이 같은 어휘문화의 발현 양상 중 하나⁷⁾이자, 이를 운반하는 ‘단어’로서 공유문화 적재(C.C.P.)가 핵심이

-
- 5) Galisson, R. “La pragmatique lexiculturelle pour accéder autrement, à une autre culture par un autre lexique”, *ELA*, 116, 1999, p.479.
 - 6) La «lexiculture» peut alors se définir comme...la culture mobilisée et actualisée dans et par les mots de tous les discours dont le but n'est pas l'étude de la culture pour elle-même. Galisson, R. “Où il est question de lexiculture, de cheval de Troie, et d'impressionnisme”, *ELA*, 97, 1995, p.6.
 - 7) Galisson(1999:481-487)은 어휘문화가 발현되는 대표적인 단어들의 부류로써 공유문화 적재어를 비롯하여 혼성어(mots-valises), 상표명사(noms de marques), 함의어(palimpsestes verbo-culturels, PVC), 상황어(OC[V] et mots de situations)를 제시하였다. 각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혼성어 예) parlementeur(거짓말쟁이 국회)= ‘parlement(국회)’ + ‘menteur(거짓말쟁이)’
 - ② 상표명사 예) ‘vache qui rit’와 ‘Badoit’ (가령 “Deux ‘vache qui rit’, un coup de ‘Badoit’ et ça repart !”라는 발화(Galisson & André, 1998:5)에서 ‘vache qui rit’와 ‘Badoit’가 각각 ‘소’와 ‘탄산수’를 지칭하는 상표명사라는 것을 모르면 이 발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 ③ 함의어 예)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 제목에 준거하여, ‘A la recherche du teint perdu(잃어버린 안색을 찾아서)’와

되는 개념이다. 공유문화 적재어를 이해하기 위해 C.C.P.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 C.C.P.를 이루는 공유문화(Culture Partagée, 이하 C.P.)와 C.C.P.의 형성과정⁸⁾을 차례로 간략히 살펴보자.

C.P.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하루하루 세월이 가면서 원하던 원하지 않은 행동하고 세상을 보고 느끼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체험을 통해 습득되어 은연중에 공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⁹⁾ 이 같은 C.P.가 적재된 상태가 바로 C.C.P.인데, 그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하나의 단어, 곧 기호(Signe)는 Signifiant(기표, 이하 Sa), Signifié(기의, 이하 Sé) 그리고 C.C.P.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Sé는 Locuteur collectif(화자집단, 이하 Loc.col.)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개입하면서 Référé(지시대상, 이하 Ré)에 대해 형성한 객관적 시선에서 발생한 일차적 의미이다. 반면 C.C.P.는 Loc.col.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Ré 혹은 Para-Référé(준 지시대상, 이하 Pa-Ré) 요소를 해석하는 Loc.col.의 주관성에서 발생한 이차적 의미이다.

요컨대 Sé는 Loc.col.의 부분적 개입과 Ré에 대한 객관적 진술에 의해 형성되는 반면, C.C.P.는 Loc.col.의 완전한 개입과 Ré나 Pa-R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의해 형성된다. 가령 누군가 4월 1일이 금요일인 날에 달력을 가리키며 한 다음의 발화, 곧 « Aujourd'hui, c'est vraiment le jour du poisson. »에서 'poisson'의 일차적 의미, 곧 Sé는 '생선'이지만, 그 이차적 의미, 곧 C.C.P.는 프랑스인들의 'poisson'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 담긴 '성 금요일에 육고기를 대신하여 취하는 기름기 없는 고기(viande maigre)'¹⁰⁾로, 그들 모두가 은연중에 공유하는 가톨릭 문화, 곧 C.P.를 밝혀준다. 또 다른 예로 다음의 발화, 곧 « Eh, tu es Marseillais toi ! »에서 'Marseillais'의 Sé는 '마르세유 사람'이지만, 그 C.C.P.는 '제스처가 크고 상황을 부풀리거나 과장되게 설명하는 사람'으로, '남부 프랑스인'에 대한 프랑스 사회 구성원의 공유된 주관

같이 화자가 자신의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표현한 경우

④ 상황어: 언어적·비언어적 조작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

8) Galisson, R. *De la langue à la culture par les mots*, Paris: CLE, 1991, p.130.

9) Galisson, R. "Culture et lexiculture pour une approche dictionnaire de la culture partagée", *KLINCKSIECK*, 7, 1988b. pp.328-329.

10) Galisson, R. *De la langue à la culture par les mots*, Paris: CLE, 1991, p.119

적 판단을 밝혀준다.¹¹⁾

이 같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공유문화 적재어를 결정짓는 C.C.P.는 외국인 학습자가 해당 단어의 Sé를 알고 있을 지라도 발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원어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의사소통 능력의 주요소이자, 원어민과 비원어민 사이의 비대칭적 의사소통에서 주된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¹²⁾ 공유문화 적재어와 의사소통 능력을 분리해 생각할 수 없는 이유이다.

2. 의사소통 능력 발달 수단으로서 공유문화 적재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공유문화 적재어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최적의 수단이라고 여겨진다.

첫째, 언어적·문화적 요소의 응집체로서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위해 핵심적인 언어 및 문화 능력을 고르게 발달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언어와 문화를 함축적 공생 관계(commensalisme prégnant)에 있다고 본 Galisson¹³⁾이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균형 잡힌 교수·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처음 언급한 개념이 바로 공유문화 적재어라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Guillén Díaz가 이에 대해 오랫동안 언어와 문화 모두에 대한 교수·학습의 중요성이 인식된 이후에도 이를 위한 실제 도구나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던 아쉬움을 해소시키는 언어와 문화 교수·학습에 구체적 개입 도구로써, 교수법 발전에 기여한영원한 혁명(révolution permanente)이라고 평가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이다.¹⁴⁾

둘째, 공유문화 적재어를 구성하는 ‘공유문화(C.P.)’와 ‘단어(mot)’¹⁵⁾, 이

11) 관련 내용 출처:

<https://francofils.wordpress.com/category/mots-a-charge-culturelle-partagee/>

12) Galisson, R. “Accéder à la culture partagée par l’entremises des mots à C.C.P.”, *ELA*, 67, 1987. p.131.

13) Galisson, R. *De la langue à la culture par les mots*, Paris: CLE, 1991.

14) Guillén Díaz, C. “Une exploration du concept «lexiculture» au sein de la Didactique des Langues-Cultures”, *Didáctica*, 15, 2003, p.37.

두 가지는 모두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언어적·문화적 구성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Canale et Swain, Moirand, Boyer는 차례로 문법적 능력, 언어적 구성요소, 기호 언어적 능력에 ‘어휘 (lexique)’, 그리고 사회 언어학적 능력, 사회 문화적 구성요소, 민족·사회 문화적 능력에 ‘문화’를 포함시킨다.¹⁶⁾ 이 가운데 ‘어휘’는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의사소통의 기본 재료¹⁷⁾이자, 담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면서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언어 단위¹⁸⁾로서,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해 긴요한 언어적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문화 가운데 하나인 ‘공유문화’는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체득하여 그들 대부분이 은연중에 공유하는 것이나, 의사소통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는 언어 외에 우선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언어적 측면과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공유문화 적재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을 염두에 두고 언어와 문화를 통합시키고 결속시켜 단어를 통해 문화에 접근

15) 다음 세 가지 곧 mot, lexique, vocabulaire는 줄곧 혼용되곤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먼저 ‘mot’와 ‘lexique’를 살펴보자. ‘mot’는 ‘lexique’를 구성하는 의미를 갖는 기본 단위(Galissou et Coste, 1976:360)로, ‘단어’로 해석될 수 있다. ‘lexique’는 ‘단어’의 총체에 해당하므로 ‘mot’보다 큰 단위라고 볼 수 있지만, ‘lexique’ 역시 ‘의미를 갖는 기본이 되는 언어 단위’로 분류된다는 점에서(Galissou et Coste, 1976:317), 이 두 개념은 경우에 따라 혼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vocabulaire’와 ‘lexique’의 경우, ‘lexique’는 개별적으로 온전한 의미를 형성하는 언어 단위이면서 사용 영역에 제한이 없는 반면, ‘vocabulaire’는 ‘lexique’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주제 단위로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Tréville et Duquette. 1996:12). 가령 vocabulaire des jeunes 등이 그것이다. 이렇듯 ‘vocabulaire’와 ‘lexique’는 그 개념상에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이를 밝혀줄 수 있는 변별적 용어를 찾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개념 모두 ‘어휘’로 해석하기로 한다.

16) Canale, M., Swain, M.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and testing”, in *Applied Linguistics*, 1(1), 1980, pp.28-31. Boyer, H. et al. *Nouvelle introduction à la didactiqu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Paris: CLE, 1990, pp.:46-51. Moirand, S. *Enseigner à communiquer en langue étrangère*, Paris: Hachette, 1982, p.20.

17) Wilkins, D. A.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London, UK: Edward Arnold. 1972.

18) Tréville, M.-C. et Duquette, L. *Enseigner le vocabulaire en classe de langue*, Paris: Hachette, 1996.

하기 위해 탄생한 어휘문화의 운반수단으로, 그 개념의 근원이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에 있기 때문이다.

III.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

본 절에서는 공유문화 적재어 가운데 특별히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의 목록화를 염두에 두고, 그 개념과 연구 범위 및 방법을 구체화할 것이다.

1.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

Galisson은 공유문화 적재어의 생성 방식에 따라 그 하위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는 그 가운데 하나¹⁹⁾로서, 역사와 관습 등의 토대 위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목표어 사회 구성원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특히 습득하기 어려운 유형에 해당한다. 한편 이 유형은 판단이 드러나는 양상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경우, 곧 직접적 비유(assignment directe)와 간접적 비유 및 은유(assignment indirecte)²⁰⁾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① 직접적 비유(assignment directe)

예) « ... bavard comme une pie » « 까치 같은 수다쟁이 »

② 간접적 비유 혹은 은유(assignment indirecte)

예) « avoir une mémoire d'éléphant » « 기억력이 뛰어나다 »

19)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 외에 나머지 두 가지 하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생산지-특산품 연상 어휘 예) moutarde - Dijon: ‘moutarde’의 생산지로 유명한 ‘Dijon’이 연상됨.
- 관습 연상 어휘 예) Baptême - dragées: ‘세례식(Baptême)’하면 세례식 날 주고받는 ‘사탕(dragées)’이 연상됨. Galisson, R. “Culture et lexiculture partagées, Les mots comme lieux d’observation des faits culturels”, *ELA*, 69, 1988a, pp.78-79.

20) Galisson(1991)에 따르면, ‘assignment directe’는 직접적 비유(comparaison), ‘assignment indirecte’는 간접적 비유 혹은 은유(métaphore)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양상 가운데 ①번의 경우, Tu es bavard comme une pie !에서 ‘까치(pie)’는 ‘수다쟁이’라는 프랑스인들의 판단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전체 의미 파악이 어렵지 않은 반면, ②번의 경우, Tu as une mémoire d'éléphant !에서 ‘코끼리(éléphant)’는 ‘지혜롭고 영리한 동물’이라는 그들의 판단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발화 이해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습득이 보다 어렵다고 여겨지는 ②번, 곧 간접적 비유 및 은유의 경우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의 목록화를 위해 먼저 그 연구 범위를 일상적인 주제 가운데 비유와 은유의 대상으로 자주 활용되는 다음의 세 가지, 곧 1.동물, 2.음식, 3.신체 부위로 한정하였다. 그 다음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 목록의 교육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학습 대상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고려한 목록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언어 수준을 자립적 사용자(utilisateur indépendant)에 해당하는 B수준²¹⁾으로 설정하였다. 일차적 의미(Sé) 위에 이차적 의미(C.C.P.)가 덧붙여 만들어지는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의 난이도는 기초 수준보다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수집하기 위해 관용표현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C.C.P.를 이미 형성된 완전한 판단의 결과물로 보고, 이것이 관용표현을 통해 운반된다는 Galisson의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²²⁾ 또한 관용표현은 문어에서 보다 구어에서 메시지를 인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자주 활용된다는 점²³⁾에서 특별히 구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

21) 『유럽공통참조기준』(2001:25)(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이하 CECR)은 프랑스어 능력 수준을 크게 다음 세 가지, 곧 기초 사용자(utilisateur élémentaire), 자립적 사용자(utilisateur indépendant), 숙달된 사용자(utilisateur expérimenté)로 구분하고, 기초 사용자 수준에 A1(introductif ou découverte), A2(intermédiaire ou de survie), 자립적 사용자 수준에 B1(niveau seuil), B2(avancé ou indépendant), 숙달된 사용자 수준에 C1(autonome), C2(maîtrise)를 포함한다.

22) Galisson, R. *De la langue à la culture par les mots*, Paris: CLE, 1991.

23) González Rey는 신속하고 민첩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요구되는 구어적 의사소통

유문화 적재어를 알아보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재료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조사하기 위해 B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작된 관용표현 자료, 곧 expressions françaises(2015) 및 Enrichir et améliorer son expression en français langue étrangère(2011)와 언어수준별 관용표현을 제시한 인터넷 사이트, 곧 <http://www.bonjourdefrance.com>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B수준의 관용표현 구성 단어 가운데 판단을 드러내는 비유와 은유의 대상이 1.동물, 2.음식, 3.신체 부위에 부합하는 경우를 조사하였다.²⁴⁾ 그 결과 총 101개의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1.동물 관련 36개, 2.음식 관련 29개, 3.신체 부위 관련 36개로 나타났다.

IV.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 목록화

본 절에서는 앞서 조사한 101개의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중심으로 목록화하기 위한 방법과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1. 빈도수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 목록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단어의 사용 빈도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풍부한 문화가 담긴 공유문화 적재어라도 일상대화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면 의사소통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Binon, Verlinde, Selva, Bogaards와 같은 학자들과 CECR가 교육적으로 유용한 어휘 목록을 형성하기 위한 어휘 선별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에 적합한 수단이 바로 관용표현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González Rey, I. *La didactique du français idiomatique*, Fernelmont: E.M.E. 2007, p.9.

24)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의 출처가 된 관용표현은 <별첨 1> 참조.

하는 객관적 기준으로서 빈도수를 든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따라서 우리는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의 빈도수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일상대화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가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에 해당하는 어휘문화가 일상대화나 글에 사용된 단어들에 함의된 문화임을 상기해 볼 때,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일상대화나 글에 빈번히 활용되는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응답이 가능한 문어의 경우보다 즉각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구어에서 의사소통 장애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일반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글 보다는 일상대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에 대한 정보가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표준어 사용 지역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 연령대를 대표 표본 집단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이다. 프랑스인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일지라도 세대와 지역 등에 따라 공유하는 문화에 차이가 있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표성을 띠는 정보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Galisson의 주장²⁵⁾에 근거하여 볼 때, 표준어 사용자이면서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활발하여 시대적·사회적 변화를 이끌고 또 그 변화 중심에 있는 20대에서 50대 연령대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에 대한 정보가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위해 보다 유용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2. 설문조사

전술한 바와 같이 교육적 유용성이 큰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 목록을 형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해당 단어의 사용 빈도였기 때문에, 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하나는, 정보의 정확성과 사실성을 위해 프랑스 현지 원어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설문지는 응답자의 응답의 용이성, 설문지 전파의 수월성

25) Galisson, R. “Culture et lexiculture partagées, Les mots comme lieux d'observation des faits culturels”, *ELA*, 69, 1988a, p.83.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결과 수집의 효율성을 위해 Google Forms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²⁶⁾ 그리고 설문조사는 프랑스와 먼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구글 설문지 링크(lien)²⁷⁾를 설문요청문과 함께 이메일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른 하나는,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총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빈도 확인을 위해 해당 어휘를 정량화하는 정량적 접근방식을 적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어휘를 선별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조사에서 공유문화 적재어의 빈도수를 세 단계, 곧 ‘자주 사용 3점 · 사용 2점 · 거의 사용 안함 1점’으로 정량화한 후 ‘사용(2점)’ 이상의 빈도를 타나낸 공유문화 적재어를 추출하였다. 두 번째 조사에서는 첫 번째 조사에서 선별된 공유문화 적재어에 대해 다섯 단계, 곧 ‘매우 자주 사용 5점 · 자주 사용 4점 · 사용 3점 · 가끔 사용 2점 · 거의 사용 안함 1점’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정량화한 후 ‘사용(3점)’ 이상의 결과를 나타낸 어휘들을 선별하였다.

3.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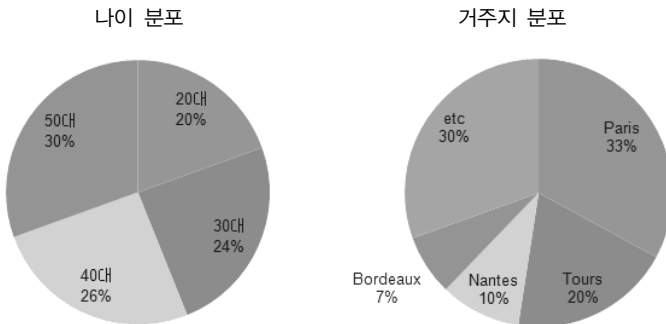
설문조사는 2019년 9월 15일부터 같은 해 11월 20일까지 약 두 달 동안 2회 실시되었다.²⁸⁾ 한편 설문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위해 설문 참여자의 수를 비롯해, 정보제공자의 ‘나이 · 거주지 · 표준어 사용 여부’가 본 연구에서

26) Google Forms은 구글에서 만든 구글 드라이브 소속 설문조사용 도구이다.(관련 설명은 https://en.wikipedia.org/wiki/Google_Forms 참조) 설문지에는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의 사용 빈도를 묻는 문항 외에, 정보제공자의 ‘나이 · 거주지 · 표준어 사용 여부’를 묻는 문항도 포함되었다. 이는 정보제공자의 ‘나이 · 거주지 · 표준어 사용 여부’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요컨대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의 사용 빈도, 정보제공자의 ‘나이 · 거주지 · 표준어 사용 여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관련 문항은 모두 필수 응답 항목으로 설정해 이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설문지 제출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27) <https://forms.gle/kosTZidhKY8Sdr789> (설문지 양식은 지면의 한계로 구글 설문지 링크로 대신함을 밝힌다.)

28) 1차 설문조사는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20일 동안 이루어졌다. 2차 설문조사는 1차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반영해 수정한 설문지를 통해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실시되었다.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 참여자는 총 85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본 연구의 설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3명²⁹⁾을 제외한 82명의 응답만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결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³⁰⁾ 둘째, 설문 응답자 82명의 나이 분포는 20대 20%(16명), 30대 24%(20명), 40대 26%(21명), 50대 30%(25명)로 대동소이한 비율을 나타냈다. 셋째, 거주지 분포는 Paris 33%(27명), Tours 20%(16명), Nantes 10%(8명), Bordeaux 7%(6명) 그리고 기타 30%(25명)로 나타났다.³¹⁾ 넷째, 설문 응답자 82명은 모두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며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비율 편차가 발생한 나이 및 거주지 분포에 대한 인식을 돕기 위해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설문 응답자 나이 및 거주지 분포

- 29) 설문요청문에 설문 목적, 빈도수 측정 기준, 설문 대상자를 명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응답자 3명, 곧 20대에서 50대의 연령대에 속하지 않는 15세와 91세 응답자 2명과 프랑스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탈리아인 1명이 설문에 응한 것으로 확인되어 결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30) 설문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약 20-30분으로 짧지 않아 많은 수의 응답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82명의 응답은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의 사용 빈도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31) 거주지 정보는 표준어 사용 여부에 대한 준거로 삼기 위함이었다. 한편 3명 이하의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101개의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대상으로 2회 실시한 빈도수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주 사용 3점 · 사용 2점 · 거의 사용 안함 1점’으로 정량화한 101개의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 가운데 ‘사용(2점)’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선별하는 것이 목적인 1차 설문조사 결과, ‘사용(2점)’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는 95개였다.³²⁾ 이는 ‘거의 사용 안함(1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다음 6개, 곧 1. 동물 관련 2개, 2. 음식 관련 3개, 3. 신체부위 관련 1개³³⁾를 제외한 수이다. 그 다음 1차 설문조사 결과에서 ‘사용(2점)’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95개의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매우 자주 사용 5점 · 자주 사용 4점 · 사용 3점 · 가끔 사용 2점 · 거의 사용 안함 1점’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정량화한 후 ‘사용(3점)’ 이상의 결과를 나타낸 어휘들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한 2차 설문조사 결과, ‘사용(3점)’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는 81개였다.

한편 ‘사용(3점)’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선별하고, 이를 사용 빈도가 높은 순으로 목록화하기 위해 각 단어의 빈도수를 수치화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용 빈도에 따라 차등화한 정량적 수치에 응답자 수를 곱하여 각 단어의 총점을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2차 설문조사 결과 ‘거의 사용 안함(1점) 5명, 가끔 사용(2점) 6명, 사용(3점) 22명, 자주 사용(4점) 19명, 매우 자주 사용(5점) 33명’으로 나타난 ‘canard’³⁴⁾의 빈도수 총점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대 410점³⁵⁾ 가

32) 95개의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 가운데 1. 동물 관련 34개, 2. 음식 관련 26개, 3. 신체부위 관련 35개로 나타났다.

33) 1차 설문조사에서 사용빈도가 ‘거의 사용 안함(1점)’으로 나타나 제외된 6개의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와 그 C.C.P.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동물 관련 2개: 1. boeuf, C.C.P: Garder obstinément un secret, 2. autruche, C.C.P: Estomac solide

* 음식 관련 3개: 1. champignon, C.C.P: Devenir puissant et riche 2. chou, C.C.P: Repos, 3. épinards, C.C.P: situation délicate

* 신체부위 관련 1개: 1. main légère, C.C.P: habileté

34) canard의 Sé는 ‘오리’이며, 그 C.C.P.는 ‘강추위에 사냥하기 쉬운 동물’ 혹은 ‘강 추위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이는 오리는 물이 얼어붙는 추운 날씨에 물이 얼지

운데 324점이었다.

예) ‘canard’의 빈도수 총점

$$1*5(\text{명}) + 2*6(\text{명}) + 3*22(\text{명}) + 4*19(\text{명}) + 5*33(\text{명}) = 324\text{점/최대 } 410\text{점}$$

한편 앞서 2차 설문조사 결과 선별된 81개의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는 최대 점수 410점을 기준으로 대략 중간에 해당하는 약 200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낸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사용’ 이상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조사한 결과이다.³⁶⁾

4.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 목록

이제 ‘사용’ 이상의 빈도를 나타낸 81개의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빈도수 총점에 근거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순으로 목록화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이 목록에는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와 그 Sé 및 C.C.P. 순위, 총점이 포함된다.³⁷⁾

않은 곳을 찾아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추운 날씨에 사냥하기 쉽다는 문화적 배경에서 기인한 것이다.

- 35)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음을 의미하는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의 최대 점수는 82명 모두가 ‘매우 자주 사용(5점)’으로 답했을 경우이므로, $5*82=410$ 점이다. 반면 사용 빈도가 가장 낮음을 의미하는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의 최소 점수는 82명이 모두 ‘거의 사용 안함(1점)’으로 답했을 경우이므로, $1*82=82$ 점이다.
- 36) 81개는 2차 설문대상이 된 95개의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에서 약 200점 이하의 점수를 나타낸 14개의 단어를 제외한 수이다. 제외된 14개의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그 C.C.P.와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chien, C.C.P: jour, 2. bras, C.C.P: sécurité et force, 3. beurre, C.C.P: facilité et simplicité, 4. poivre, C.C.P: cheveu coloré, 5. la poire et le fromage, C.C.P: des marques temporelles, 6. cochon, C.C.P: gachis, 7. loup, C.C.P: nuit, 8. lapin, C.C.P: fécondité, 9. tartine, C.C.P: non digne d'intérêt, 10. belle jambe, C.C.P: prétention masculine, 11. oiseau, C.C.P: état d'incertitude, 12. chien, C.C.P: certain charme ou chic, 13. coq, C.C.P: homme riche, 14. choux, C.C.P: se retirer à la campagne après avoir mené une vie active (81개의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 빈도수 총점 산출 내역은 <별첨 1> 참조)

〈표 1〉 81개의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 목록

순위	총점 (410)	mots à C.C.P.	Signifié(Sé)	C.C.P.
1	378	main ³⁸⁾	손	도움
2	373	gueule de bois	나무 같은 입	숙취로 인해 메마른 입
3	372	main verte	초록 손	식물을 잘 키우는 손
4	355	grosse tête	큰 머리	잘난체하는 사람
5	346	oeil	눈	감시하다
6	344	langue de vipère	독사의 혀	남을 비방하는 못된 언사
7	342	bras croisés	팔짱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
8	339	lapin	토끼	예고 없이 약속에 나오지 않음
9	337	poule	암탉	일찍 잠드는 동물
10	337	petits pains	작은 빵	매우 빨리 쉽게 팔리는 대상
11	337	nez	코	직감
12	336	main lourde	무거운 손	과잉 상태를 초래하는 손
13	336	beurre noir	검은 버터	눈이 멍든 상태
14	334	pain	빵	해야 할 일
15	334	chevilles enflées	부푼 발목	과장된 자랑
16	333	autruche	타조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 ³⁹⁾
17	333	main tendue	편 손	연대성과 이타성
18	333	dents longues	긴 치아	다른 사람의 불이익을 감안하지 않는 야심
19	328	salade	샐러드	거짓말 ⁴⁰⁾
20	324	canard	오리	강추위
21	322	chien	개	존경심 없이 함부로 다루는 대상 ⁴¹⁾
22	321	éléphant	코끼리	지혜롭고 영리한 동물
23	319	main gauche	왼손	서투름
24	319	cheveux blancs	흰머리	근심, 걱정
25	318	langue pendue	늘어진 혀	입이 가뻍고 말이 많음
26	315	patate	감자	건강한 상태 ⁴²⁾
27	314	singe	원숭이	바보스러운 짓을 하는 동물
28	313	doigts de fée	요정 손가락	솜씨가 매우 좋음
29	312	poivre et sel	후추와 소금	흰머리가 섞여있는 머리카락
30	311	bras	팔	영향력, 권력
31	310	pouce	엄지손가락	빠르게 먹는 행위의 준거
32	307	chat	고양이	신 목소리
33	307	loup	늑대	위험

37) Sé를 준거로 C.C.P.에 대한 이해나 유추가 특히 어려운 경우, 각주를 달아 그 배경에 대해 부연할 것이다.

순위	총점 (410)	mots à C.C.P.	Signifié(Sé)	C.C.P.
34	306	fine bouche	섬세한 입	입맛이나 취향이 까다롭거나 요구가 많은 사람의 입
35	304	trois pommes	사과 3개	작은 크기
36	304	belle jambe	아름다운 다리	아무 소용이 없음
37	300	bon dos	좋은 등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지는 자세
38	299	patate	감자	활기 있는 사람
39	299	coeur	심장	감정의 중추
40	293	beurre	버터	가장 가치 없는 것 ⁴³⁾
41	291	chou	양배추	머리
42	290	gros yeux	큰 눈	화가 가득한 시선
43	289	soupe au lait	우유 수프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 ⁴⁴⁾
44	289	beurre	버터	재정적인 부유함
45	283	champignon	버섯	성장이나 속도가 빠름
46	281	bonne pâte	좋은 반죽	친절함, 상냥함
47	281	coeur gros	두꺼운 심장	슬픔
48	279	tête de pioche	곡괭이 머리	고집이 센 사람
49	278	vache espagnole	스페인 소	외국어(프랑스어)를 매우 서투르게 함
50	276	vaches maigres	마른 소	가난
51	275	bras croisés	팔짱	거절의 행위
52	274	compote	과일 설탕 졸임	힘이 없고 무기력한 상태 ⁴⁵⁾
53	273	cheval	말	열이 매우 높게 남
54	270	nez	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
55	268	tartine	잼 바른 빵조각	흥미롭지 않게 길게 쓴 텍스트 ⁴⁶⁾
56	267	chevaux	말	관점을 방어하기 위해 쉽게 흥분하는 사람
57	260	vache	소	성격이 못된 동물
58	258	artichaut	아티초크	사랑에 쉽게, 자주 빠지는 마음 ⁴⁷⁾
59	252	dent dure	단단한 치아	누군가를 향한 공격적인 비판
60	245	cochon	돼지	지저분한 동물
61	245	coq	닭	조심성 많은 동물
62	244	chat	고양이	어둠속을 잘 보는 동물
63	241	cochon	돼지	지속한 동물,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64	240	pain	빵	제1요소, 반드시 필요한 요소
65	238	sel	소금	흰머리
66	234	chien et loup	개와 늑대	해거름 ⁴⁸⁾
67	227	crocodile	악어	거짓 눈물 또는 위선적인 행위 ⁴⁹⁾
68	225	éléphant	코끼리	서투름
69	225	pain blanc	흰 빵	최고의 것 ⁵⁰⁾
70	224	fromage	치즈	중요하게 여기는 복잡한 것 ⁵¹⁾
71	221	éléphant	코끼리	무거운 동물
72	219	crouûte	빵 껍질	고됨 ⁵²⁾

순위	총점 (410)	mots à C.C.P.	Signifié(Sé)	C.C.P.
73	216	éléphant rose	분홍 코끼리	과음으로 인한 환각 상태
74	216	langue	혀	말
75	211	coq	닭	이성을 유혹하는 사람
76	210	langue pendue	늘어진 혀	무례한 말
77	207	loup	늑대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동물
78	207	dos rond	둥근 등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자세 ⁵³⁾
79	203	baleine	고래	큰 미소 ⁵⁴⁾
80	194	poule	암탉	당황한 사람
81	191	main	손	능숙함, 재능

이와 같이 일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총 81개의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 가운데 1.동물 관련 27개, 2.음식 관련 21개, 3.신체부위 관련 33개가 포함되었다.

-
- 38) 한 단어에 한 개 이상의 상이한 C.C.P.가 존재하거나, 동일한 단어에 대한 관용 표현 출처가 상이할 경우, 번호를 나누어 설문하였다. ‘main’과 같은 mots à C.C.P.가 한 개 이상 존재하는 이유이다.
- 39) 위기 상황에서 땅에 머리를 박는 타조의 행위에 대한 인식을 밝혀줌.
- 40) 먹기 좋게 여러 재료를 섞어 만드는 샐러드의 특성에 대한 사고방식을 밝혀줌.
- 41) 오늘날과 달리 개를 천시하던 과거문화를 밝혀줌.
- 42) 감자의 둥근 형태를 건강 상태와 관련짓는 사고방식을 밝혀줌.
- 43) 기름기 많은 버터의 외형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을 밝혀줌.
- 44) 데우는 과정에서 갑자기 끊기 시작해 쉽게 가라앉지 않는 우유의 특성에 대한 사고방식을 밝혀줌.
- 45) 과일을 설탕에 졸였을 때의 물렁물렁한 compote 특성에 대한 인식을 밝혀줌.
- 46) 여러 재료를 놓아 만드는 빵 조각에 대한 사고방식을 밝혀줌.
- 47) 잎사귀 속 중심이 말랑말랑한 아티초크의 특성에 대한 인식을 밝혀줌.
- 48) 날이 어두워지면 개를 늑대와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고방식에서 기인함.
- 49) 먹이를 잡아먹고 거짓으로 흘리는 악어의 눈물에 대한 사고방식을 밝혀줌.
- 50) 가난한 사람은 어두운 색의 빵을 먹고 부르주아 층은 흰 빵을 먹었던 과거문화를 밝혀줌.
- 51) 우유에서 시작해 많은 손을 거쳐 만들어지는 치즈의 특성에 대한 사고방식을 밝혀줌.
- 52) 딱딱한 빵 껍질에 대한 사고방식을 밝혀줌.
- 53) 위협 앞에서 털을 곤두세우고 등을 둥글게 하는 고양이 자세에 대한 인식을 밝혀줌.
- 54) 입이 큰 고래에 대한 인식을 밝혀줌.

V. 맺음말

주지하다시피 의사소통 능력은 언어 및 문화 능력이 조화롭게 발현될 때 발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언어적·문화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공유문화 적재어(mots à C.C.P.)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핵심적인 언어 및 문화 능력의 균형 잡힌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가운데 목표어 사회 구성원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내포하는 까닭에 외국인 학습자가 특히 습득하기 어려운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이를 사용 빈도에 의거하여 목록화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자료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의 연구 범위를 1.동물, 2.음식, 3.신체 부위로 한정된 후, B수준의 관용표현 구성 단어 가운데 판단을 드러내는 단어가 이 세 가지 연구 범위에 부합하는 101개의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조사하였다. 그 다음 일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선별하기 위해 이 101개의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정량화한 후 프랑스 현지 원어민을 대상으로 2회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일상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81개의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사용 빈도가 높은 순으로 목록화하였다.

한편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의사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 자료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제 우리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어떠한 교육적 효과 및 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지 밝히면서 본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크게 다음 네 가지의 교육적 효과 및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언어 및 문화 능력을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유문화 적재어는 언어적·문화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이 두 가지 측면에 동시에 접근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해 문화, 문화를 통해 언어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과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해진 다문화 시대에 타

문화 이해를 돕는 상호문화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나라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가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는 상호문화 교류의 최적지⁵⁵⁾)로서 상호문화교육에 효과적인 교육 재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유문화 적재어 사전 편찬과 같은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유문화 적재어는 외국인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사전 편찬의 필요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국인 학습자가 특히 습득하기 어려운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를 목록화한 본 연구 결과물은 이 같은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언어와 문화의 통합 교육을 위한 유의미한 참조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와 문화의 유기성에 착안하여 진행된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정들과 밝혀진 사실들은 언어와 문화의 통합적 교육을 주장하는 학자들에게 유의미한 참조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는 언어와 문화를 이분법적으로 다루던 접근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의 제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55) Galisson, R. *De la langue à la culture par les mots*, Paris: CLE, 1991.

■ 참고문헌

- 곽노경, 「프랑스어 단어 속에 담긴 문화 연구」, 『비교문화연구』, 48집, 2017.
- 김은정, 「프랑스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 어휘 개념정립과 유형 분석」, 『프랑스어문교육』, 41집, 2012.
- 김은정, 「프랑스어의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위한 문화어휘 목록 수립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김은정, 「대학 교양 프랑스어 교육 현황 고찰」, 『어학연구』, 54-1집, 2018.
- 심봉섭, 「어휘를 통한 문화 교육」, 『외국어교육연구』, 2집, 1999.
- Binon, J et al. “Lexicographie pédagogique et enseignement/apprentissage du vocabulaire en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ou seconde(FLES)”, *Cahiers de lexicologie*, 78, 2001.
- Bogaards, P. *Le vocabulaire dans l'apprentissage des langues étrangères*, Paris: Didier, 1994.
- Boyer, H. et al. *Nouvelle introduction à la didactique du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Paris: CLE, 1990.
- Canale, M., Swain, M.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and testing”, in *Applied Linguistics*, 1(1), 1980.
- Conseil de l'Europe. *Cadre européen commun de référence pour les langues*, Paris: Didier, 2001.
- Galisson, R. “La pragmatique lexiculturelle pour accéder autrement, à une autre culture par un autre lexique”, *ELA*, 116, 1999.
- Galisson, R. & J.-C. André. *Dictionnaire de noms de marques courants, essai de lexiculture ordinaire*, Paris: Didier, 1998.
- Galisson, R. “Où il est question de lexiculture, de cheval de Troie, et d'impressionnisme”, *ELA*, 97, 1995.
- Galisson, R. *De la langue à la culture par les mots*, Paris: CLE, 1991.
- Galisson, R. “De la linguistique appliquée à la didactologie des langues-cultures : vingt ans de réflexion disciplinaire”, *ELA*, 79, 1990.
- Galisson, R. “Accéder à la culture partagée par l'entremises des mots à

- C.C.P.”, *ELA*, 67, 1987.
- Galisson, R. “Culture et lexiculture partagées, Les mots comme lieux d'observation des faits culturels”, *ELA*, 69, 1988a.
- Galisson, R. “Culture et lexiculture pour une approche dictionnaire de la culture partagée”, *KLINCKSIECK*, 7, 1988b.
- Galisson, R. et Coste D. *Dictionnaire de didactique des langues*, Paris: Hachette, 1976.
- González Rey, I. *La didactique du français idiomatique*, Fernelmont: E.M.E. 2007.
- Guillén Díaz, C. “Une exploration du concept «lexiculture» au sein de la Didactique des Langues-Cultures”, *Didáctica*, 15, 2003.
- Hymes, D. H. *Vers la compétence de communication*, Paris: Didier, 1991.
- Moirand, S. *Enseigner à communiquer en langue étrangère*, Paris: Hachette, 1982.
- Nicole, B. et al. *expressions françaises 150, Niveau intermédiaire(B1-B2)*, Paris: Ellipses, 2015.
- Robert, J.M. *Enrichir et améliorer son expression en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Niveau intermédiaire*, Paris: Ellipses, 2011.
- Tréville, M.-C. et Duquette, L. *Enseigner le vocabulaire en classe de langue*, Paris: Hachette, 1996.
- Wilkins, D. A.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London, UK: Edward Arnold. 1972.

<인터넷 문서 및 사이트>

<https://francofils.wordpress.com/category/mots-a-charge-culturelle-partagee/>

<http://www.bonjourdefrance.com>

〈별첨 1〉 81개 '판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재어' 빈도수 산출 내역 (약 200점 이상)

순위	mots à C.C.P.	빈도1		빈도2		빈도3		빈도4		빈도5		최종 점수	출처가 된 관용표현
		(명)	(%)	(명)	(%)	(명)	(%)	(명)	(%)	(명)	(%)		
1	main	2	2.4	4	4.7	5	5.9	17	20	57	37.8		Donner un coup de main
2	gueule de bois	4	4.7	2	2.4	9	10.6	12	14.1	58	38.2	373	Avoir la gueule de bois
3	main verte	3	3.5	2	2.4	6	7.1	23	27.1	51	60	372	Avoir la main verte
4	grosse tête	4	4.7	4	4.7	10	11.8	22	25.9	45	52.9	355	Avoir la grosse tête
5	oeil	4	4.7	5	5.9	14	16.5	20	23.5	42	49.4	346	Avoir à l'oeil
6	langue de vipère	6	7.1	6	7.1	11	12.9	17	20	45	52.9	344	Avoir la langue de vipère
7	bras croisés	7	8.2	5	5.9	8	9.4	24	28.2	41	48.2	342	Rester les bras croisés
8	lapin	8	9.4	5	5.9	13	15.3	13	15.3	46	54.1	339	Poser un lapin
9	poule	7	8.2	7	8.2	8	9.4	23	27.1	40	47.1	337	Se coucher avec les poules
10	petits pains	4	4.7	9	10.6	15	17.6	15	17.6	42	49.4	337	Se vendre comme des petits pains
11	nez	2	2.4	11	12.9	14	16.5	19	22.4	39	45.9	337	Avoir le nez (fin)
12	main lourde	3	3.5	8	9.4	16	18.8	21	24.7	37	43.5	336	Avoir la main lourde
13	beurre noir	6	7.1	6	7.1	15	17.6	17	20	41	48.2	336	Un oeil au beurre noir
14	pain	6	7.1	3	3.5	20	23.5	18	21.2	38	44.7	334	Avoir du pain sur la planche
15	chevilles enflées	6	7.1	4	4.7	15	17.6	25	29.4	35	41.2	334	Avoir les chevilles qui enflent
16	autruche	3	3.5	8	9.4	18	21.2	20	23.5	36	42.4	333	Faire l'autruche
17	main tendue	5	5.9	9	10.6	12	14.1	21	24.7	38	44.7	333	Avoir le coeur sur la main
18	dents longues	8	9.4	5	5.9	14	16.5	17	20	41	48.2	333	Avoir les dents longues
19	salade	4	4.7	9	10.6	18	21.2	18	21.2	36	42.4	328	Raconter des salades
20	canard	5	5.9	6	7.1	22	25.9	19	22.4	33	38.8	324	Faire un froid de canard
21	chien	7	8.2	9	10.6	11	12.9	26	30.6	32	37.6	322	Traiter quelqu'un comme un chien
22	éléphant	5	5.9	6	7.1	23	27.1	20	23.5	31	36.5	321	Avoir une mémoire d'éléphant
23	main gauche	10	11.8	9	10.6	12	14.1	15	17.6	39	45.9	319	Avoir deux mains gauches
24	cheveux blancs	7	8.2	5	5.9	17	20	29	34.1	27	31.8	319	Se faire des cheveux blancs

순위	mots à C.C.P.	빈도1		빈도2		빈도3		빈도4		빈도5		최종 점수	출처가 된 관용표현
		(명)	(%)	(명)	(%)	(명)	(%)	(명)	(%)	(명)	(%)		
25	langue pendue	10	11.8	9	10.6	9	10.6	22	25.9	35	41.2	318	Avoir la langue bien pendue
26	patate	7	8.2	10	11.8	13	15.3	26	30.6	29	34.1	315	Avoir la patate
27	singe	11	12.9	9	10.6	11	12.9	18	21.2	36	42.4	314	Faire le singe
28	doigts de fée	9	10.6	9	10.6	13	15.3	23	27.1	31	36.5	313	Avoir des doigts de fée
29	poivre et sel	10	11.8	11	12.9	11	12.9	18	21.2	35	41.2	312	Être poivre et sel
30	bras	6	7.1	7	8.2	14	16.5	41	48.2	17	20	311	Avoir le bras long
31	pouce	8	9.4	8	9.4	23	27.1	13	15.3	33	38.8	310	Manger sur le pouce
32	chat	6	7.1	10	11.8	15	17.6	34	40	20	23.5	307	Avoir un chat dans la gorge
33	loup	5	5.9	7	8.2	25	29.4	27	31.8	21	24.7	307	Se jeter dans la gueule du loup
34	fine bouche	6	7.1	11	12.9	18	21.2	26	30.6	24	28.2	306	Faire la fine bouche
35	trois pommes	5	5.9	11	12.9	20	23.5	28	32.9	21	24.7	304	Haut comme trois pommes
36	belle jambe	10	11.8	7	8.2	16	18.8	28	32.9	24	28.2	304	Ça me fait une belle jambe
37	bon dos	11	12.9	8	9.4	15	17.6	27	31.8	24	28.2	300	Avoir bon dos
38	patate	10	11.8	12	14.1	13	15.3	24	28.2	26	30.6	299	Avoir la patate
39	coeur	16	18.8	9	10.6	9	10.6	17	20	34	40	299	Avoir le coeur sur la main
40	beurre	10	11.8	13	15.3	15	17.6	23	27.1	24	28.2	293	Compter pour du beurre
41	chou	11	12.9	10	11.8	19	22.4	22	25.9	23	27.1	291	Prendre le chou
42	gros yeux	11	12.9	7	8.2	23	27.1	24	28.2	20	23.5	290	Faire des gros yeux à quelqu'un
43	soupe au lait	15	17.6	11	12.9	15	17.6	13	15.3	31	36.5	289	Être soupe au lait
44	beurre	17	20	9	10.6	11	12.9	19	22.4	29	34.1	289	Mettre du beurre dans les épinards
45	champignon	11	12.9	13	15.3	18	21.2	23	27.1	20	23.5	283	Pousser comme un champignon
46	bonne pâte	12	14.1	12	14.1	22	25.9	16	18.8	23	27.1	281	être une bonne pâte
47	coeur gros	9	10.6	13	15.3	27	31.8	15	17.6	21	24.7	281	Avoir le coeur gros
48	tête de pioche	16	18.8	14	16.5	9	10.6	22	25.9	24	28.2	279	une tête de pioche
49	vache espagnole	20	23.5	8	9.4	11	12.9	21	24.7	25	29.4	278	Parler français comme une vache espagnole
50	vaches maigres	14	16.5	9	10.6	26	30.6	14	16.5	22	25.9	276	C'est une période de vaches maigres

순위	mots à C.C.P.	빈도1		빈도2		빈도3		빈도4		빈도5		백분율 (%)	최종 점수	출처가 된 관용표현
		(명)	(%)	(명)	(%)	(명)	(%)	(명)	(%)	(명)	(%)			
51	bras croisés	20	23.5	9	10.6	9	10.6	25	29.4	22	25.9	27.5	25.9	Rester les bras croisés
52	compote	7	8.2	18	21.2	25	29.4	19	22.4	16	18.8	27.4	18.8	En compote
53	cheval	12	14.1	12	14.1	22	25.9	24	28.2	15	17.6	27.3	17.6	Avoir une fièvre de cheval
54	nez	13	15.3	10	11.8	28	32.9	17	20	17	20	27.0	20	Avoir quelqu'un dans le nez
55	tartine	15	17.6	15	17.6	17	20	18	21.2	20	23.5	26.8	23.5	Faire (écrire) une tartine
56	chevaux	9	10.6	11	12.9	34	40	21	24.7	10	11.8	26.7	11.8	Monter sur ses grands chevaux
57	vache	16	18.8	9	10.6	27	31.8	20	23.5	13	15.3	26.0	15.3	Une peau de vache
58	artichaut	16	18.8	14	16.5	23	27.1	15	17.6	17	20	25.8	20	Avoir un cœur d'artichaut
59	dent dure	19	22.4	13	15.3	21	24.7	16	18.8	16	18.8	25.2	18.8	Avoir la dent dure
60	cochon	27	31.8	8	9.4	10	11.8	28	32.9	12	14.1	24.5	14.1	Donner de la confiture aux cochons
61	coq	15	17.6	14	16.5	29	34.1	20	23.5	7	8.2	24.5	8.2	Être comme un coq en pâte
62	chat	20	23.5	13	15.3	26	30.6	10	11.8	16	18.8	24.4	18.8	Avoir des yeux de chat
63	cochon	23	27.1	9	10.6	20	23.5	25	29.4	8	9.4	24.1	9.4	Donner de la confiture aux cochons
64	pain	14	16.5	20	23.5	28	32.9	13	15.3	10	11.8	24.0	11.8	Enlever le pain de la bouche
65	sel	27	31.8	14	16.5	9	10.6	19	22.4	16	18.8	23.8	18.8	Être poivre et sel
66	chien et loup	29	34.1	7	8.2	21	24.7	12	14.1	16	18.8	23.4	18.8	Entre chien et loup
67	crocodile	24	28.2	11	12.9	29	34.1	11	12.9	10	11.8	22.7	11.8	Verser des larmes de crocodile
68	éléphant	21	24.7	22	25.9	17	20	16	18.8	9	10.6	22.5	10.6	Comme un éléphant dans un magasin de porcelaine
69	pain blanc	26	30.6	12	14.1	24	28.2	12	14.1	11	12.9	22.5	12.9	Manger son pain blanc en premier
70	fromage	21	24.7	18	21.2	22	25.9	19	22.4	5	5.9	22.4	5.9	En faire tout un fromage
71	éléphant	17	20	25	29.4	23	27.1	15	17.6	5	5.9	22.1	5.9	Comme un éléphant dans un magasin de porcelaine
72	croûte	23	27.1	18	21.2	24	28.2	12	14.1	8	9.4	21.9	9.4	Gagner sa croûte
73	éléphant rose	22	25.9	19	22.4	28	32.9	8	9.4	8	9.4	21.6	9.4	Voir des éléphants roses
74	langue	31	36.5	10	11.8	21	24.7	13	15.3	10	11.8	21.6	11.8	Avoir la langue de vipère
75	coq	24	28.2	18	21.2	24	28.2	16	18.8	3	3.5	21.1	3.5	Coq de village
76	langue pendue	29	34.1	13	15.3	24	28.2	12	14.1	7	8.2	21.0	8.2	Avoir la langue bien pendue

순위	mois à C.C.P.	빈도1 (명)	백분율 (%)	빈도2 (명)	백분율 (%)	빈도3 (명)	백분율 (%)	빈도4 (명)	백분율 (%)	빈도5 (명)	백분율 (%)	최종 점수	출처가 된 관용표현
77	loup	25	29.4	16	18.8	30	35.3	10	11.8	4	4.7	207	Marcher à pas de loup
78	dos rond	31	36.5	13	15.3	25	29.4	5	5.9	11	12.9	207	Faire le gros dos
79	baleine	30	35.3	18	21.2	19	22.4	10	11.8	8	9.4	203	Rire comme une baleine
80	poule	41	48.2	9	10.6	16	18.8	8	9.4	11	12.9	194	Être comme une poule qui a trouvé un couteau
81	main	31	36.5	21	24.7	20	23.5	7	8.2	6	7.1	191	Avoir la main

* 제외된 14개 '핀단이 내포된 공유문화 적제어' 빈도수 산출 내역 (약 200점 이하)

번호	mois à C.C.P.	빈도1 (명)	백분율 (%)	빈도2 (명)	백분율 (%)	빈도3 (명)	백분율 (%)	빈도4 (명)	백분율 (%)	빈도5 (명)	백분율 (%)	최종 점수	출처가 된 관용표현
1	chien	34	40	16	18.8	22	25.9	8	9.4	5	5.9	189	Entre chien et loup
2	bras	38	44.7	15	17.6	16	18.8	10	11.8	6	7.1	186	Tomber dans les bras de Morphée
3	beurre	39	45.9	13	15.3	22	25.9	5	5.9	6	7.1	181	Mettre du beurre dans les épinards
4	poivre	41	48.2	13	15.3	18	21.2	7	8.2	6	7.1	179	Être poivre et sel
5	poire	40	47.1	16	18.8	19	22.4	5	5.9	5	5.9	174	Entre la poire et le fromage
6	cochon	38	44.7	22	25.9	12	14.1	10	11.8	3	3.5	173	Donner de la confiture aux cochons
7	loup	37	43.5	24	28.2	15	17.6	6	7.1	3	3.5	169	Entre chien et loup
8	lapin	45	52.9	20	23.5	10	11.8	4	4.7	6	7.1	161	Poser un lapin
9	tartine	47	55.3	19	22.4	10	11.8	4	4.7	5	5.9	156	Faire (écrire) une tartine
10	belle jambe	46	54.1	22	25.9	8	9.4	6	7.1	3	3.5	153	Ça me fait une belle jambe
11	oiseau	47	55.3	21	24.7	9	10.6	5	5.9	3	3.5	151	Comme l'oiseau sur la branche
12	chien	51	60	18	21.2	7	8.2	6	7.1	3	3.5	147	Avoir du chien
13	coq	61	71.8	16	18.8	5	5.9	0	0	3	3.5	123	Coq de village
14	choux	63	74.1	15	17.6	4	4.7	0	0	3	3.5	120	Planter ses choux

❖ ABSTRACT

A Study on Words with "Shared Cultural Charge"
for Improving French Communicative Competence
– Focus on Words "Shared Cultural Charge"
Implied Judgment*

Kim, EnJ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French communicative competence by means of words with “shared cultural charge”. For developing this communicative competence,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language and culture is crucial. In this context, words with “shared cultural charge” combined organically with linguistic and cultural elements, are considered an ideal means of developing these two perspectives in a balanced way. This study especially focuses on the words with "shared cultural charge" implied judgment, considered particularly difficult for foreign learners because they comprise a long-standing mindset or values based on history and customs.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effective and efficient educational materials for improving communication competence by creating a list of the words with "shared cultural charge" implied judgment based on frequency of use.

To prepare such a list, this study first set the target learner's language level to the B level corresponding to the intermediate language level. Next, we examined the words with "shared cultural charge" implied judgment

* I sincerely thank my French friends, Bruno BOISMOREAU, Aude GUYOT, Marie MALJEAN, Aurélie MANDON, and Émilie MASSON who helped disseminate the survey in France.

wherein the subjects showing judgment corresponding to animals, food, and body parts. In this process, we used an idiomatic expression comprising judgment at the intermediate level. Two surveys were also conducted with native speakers in France to select the words with "shared cultural charge" implied judgment, frequently used in daily life.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words with "shared cultural charge" implied judgment were ranked and cataloged.

Key Words : communicative competence, words with "shared cultural charge", theory "lexiculture", shared culture, words "shared cultural charge" implied judgment

■ 논문접수일 : 2020. 02. 10

■ 심사완료일 : 2020. 03. 02

■ 게재확정일 : 2020. 03. 03